

# 급변하는 생보사 M&A 판도... 동양·ING 누구 손에?

## 동양생명

업계 7위·매각가 1.2兆 매력도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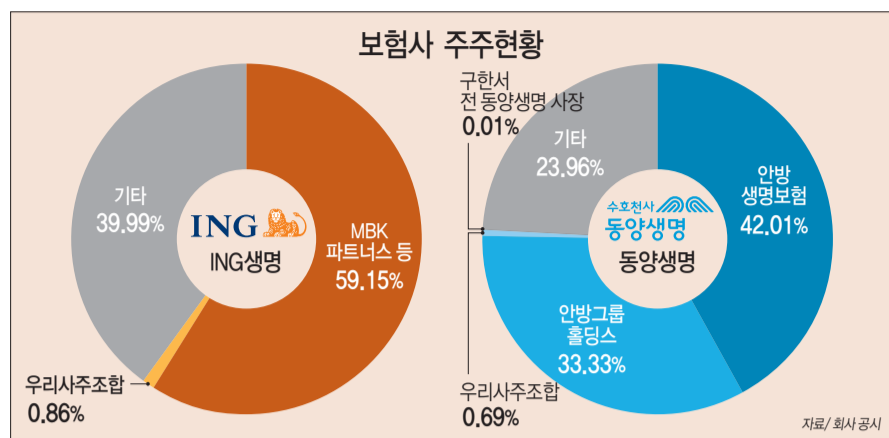
## ING생명

높은 몸값 난항... 시기 늦출 수도

중국 안방보험의 자회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매각설'로 국내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의 썬밭이 복잡해졌다. 3조원에 이르는 높은 몸값으로 잠재 매수인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ING생명 매각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동양생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ING생명 못잖은 '매력적' 매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재 기업공개(IPO) 및 배당 등으로 과거 회사 인수자금을 대부분 회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로선 ING생명 매각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을 위탁 경영 중인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



회는 최근 해외 계열사 매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회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매각설이 흘러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안방그룹에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한 결과 회사의 잠재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자산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방보험의 국내 자회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역시 실사대상에 포함돼 잠재 매수자로 꼽히는 국내 금융지주사 등에 인수의 향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 1조2000억원 vs ING생명 2조6000억원

안방보험은 과거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한 이후 이상증자 등 '차이나머니'를 무기로 회사 가치를 높여왔다.

실제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0조2737억원의 업계 7위 생보사로 우뚝 섰다. 경쟁 매물로 꼽히는 ING생명의 자산(31조455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순이익 1844억원,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211.25%로 ING생명(3402억원·455.30%)에는 못미치지만 시장 인수가를 고려할 때 동양생명의 매력도가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동양생명은 주식시장에서 77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총 1조2425억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냈다. 안방 지분을 75% 등을 감안할 때 매각가는 1조20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ING생명의 잠정 매각가인 2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시장의 관심을 살 만하다.

동양생명은 다만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는 안방보험의 지분 매각설 등과 관련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은 공시를 통해 "현재 안방보험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 ◆시장 변화에... ING생명, 몸값 '고민'

동양생명이 이처럼 보다 낮은 매각가로 M&A 시장의 잠재 매물로 떠오르면서 ING생명을 매각하려던 MBK파트너스 로선 고민에 빠졌다. 인수를 타진하던 금

융지주사도 당장 ING생명의 높은 매각가를 걸림돌로 꼽아왔다.

ING생명 인수를 염두하고 있는 신한금융 관계자는 "ING생명과 협상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격은 너무 높은 상황"이라며 "동양생명이 시장 매물로 나올 경우 '새 판'을 짜기 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사 M&A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변화에 연내 매각 철회도 고려할 전망이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로선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ING생명을 팔기에는 현재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회수한 상황이기 때문. 그러나 올해 ING생명의 브랜드 사용권 한이 종료되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엇비슷한 자산규모의 보험사가 매물로 나올 경우 시장의 관심은 더 낮은 매각가를 부르는 보험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ING생명의 매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한줄뉴스

▲ 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 무대가 된다.

▲ 지난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됐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일부터 LG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G7 씬큐(ThinQ)'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 KT가 아프리카 최초로 르완다에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 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상장사들이 올해 첫 성적표(1분기 실적) 예상치가 장밋빛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불안한 기만하다.

▲ 국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가계부채가 꼽혔다. 4·27 판문점 선언의 영향으로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은 낮아졌다.

▲ 이번 주는 분양 성수기를 맞아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17곳에서 총 1만1481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1순위 청약의 진행한다.

▲ 사드 해빙 분위기가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중국인 개별관광객(싼커) 유입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酬價)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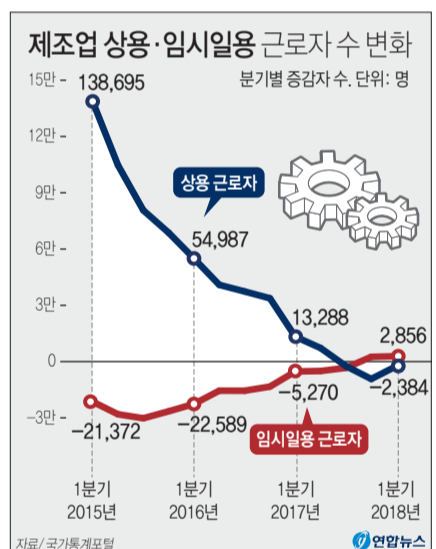
## 자동차·조선업 불황 여파... 일자리 감소

### 구조조정·산업 부진 영향으로 악화

자동차 및 조선업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철강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재직 중인 상용노동자 수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한 제조업 상용노동자 수는 지난해 3분기에 2394명이 줄었고, 작년 4분기에는 9257명이 줄었다. 올해 1분기 또한 2384명이 줄었다.

업종을 세분해 살펴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2015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용 노동자가 11



분기 연속 줄어드는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차 수출 부진 등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우려

를 사는 가운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용 노동자도 1분기에 3523명 감소했다.

이밖에 1차 금속 제조업(-3130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5689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679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562명) 등에서도 1분기에 상용 노동자 수가 줄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된 이유로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이 흔들린 것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급감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생산감소세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중 전달보다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5개월째 절반 이상을 기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광공업 생산이 감소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현재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단위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기초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주력 산업을 근간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예와 같은 사후수습이 아니라 위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방하는데 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산업의 구조 변화로 만성적 수요 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의 기반붕괴 방지와 경쟁력 확충을 위해 산업 단위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OECD, 한국 경기전망 '경고등'

### 경기선행지수 40개월만에 100 아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

13일 OECD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9.8을 기록해 1월의 99.8에 이어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OECD는 한국은 행과 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이 지수를 산출한다. 통상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승 흐름인지 하강 흐름인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4년 10월 100.0으로 100을 넘어선 뒤 다소 등락을 거듭했지만 100 위에서 대체로 상승 흐름

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3~5월은 100.9를 석 달 연속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는 단 한 차례도 반등 없는 내리막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8→100.7→100.6→100.4→100.3→100.1→100.0→99.84→99.76으로 떨어졌다.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도 우려스럽지만, 아홉 달 연속 하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뚜렷한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다른 국가들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2016년 7월 99.5로 바닥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작년 4월에 100.0을 넘어섰고, 최근까지 100.1~100.2를 오르내리며 순항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2016년 7월 99.3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난 2월 100.1까지 올라갔다. /세종=최신용 기자

## 혈세로 15만여개 일자리 지켜... '남는 장사'

### >> 1면 '국민 혈세로 GM 8천억...'서 계속

### ◆한국GM 지원금 '성격' 달라

문제는 GM과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돈의 성격이다. GM 본사는 지분율에 따른 뉴머니 중 28억달러(3조원)는 대출로, 8억달러(9000억원)는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로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한국GM 우선주에 신규 투자한다.

뉴머니만 놓고 보면 GM은 선순위인 대출, 산업은행은 후순위인 출자다. 맥튀론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를 '가성비론'으로 반박한다. '혈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80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15만6000개의 일자리를 지킨다면 '남는 장사'라는 논리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은 "4인 가구로 치면 수십만명 생계가 달렸다"며 "(협상 내내) 피가 말랐다"고 토로했다.

물론 반박 지점이 없지는 않다. 투입하는 돈은 공적 성격의 자금, 혜택받는 쪽은

외국계 사기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반위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효과가 한국GM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비토권, 지분매각 제한, 3조원 설비투자 15만6000개의 일자리를 10년 넘게 지킨다고 하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GM이 약속을 어기면 소송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GM과 GM 본사의 한국 공장 이익 빼가기 우려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GM 본사와 한국GM 사이의 부품·완성차 거래 가격의 '이전가격'의 경우 '제삼자 가격' 방식, 즉 국제 교역에서 상품·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조작성인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따졌을 때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두루뭉술한 판단뿐이다. 90%를 넘는 매출원가율(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성문 기자 ysw@